

환주
<p>김영태 신신문화인쇄(주) 사장의 장녀 세정 양이 지난 5월 16일 팰리스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p> <p>이광옥 (주)홍보컴 사장의 아들 지한 군이 지난 5월 24일 삼성호텔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p> <p>김민균 (주)금하기획 회장의 아들 영훈 군이 지난 5월 25일 육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p> <p>이영호 한영인쇄사 사장의 장녀 한주 양이 지난 5월 31일 웨딩의전당 토파즈홀에서 화촉을 밝혔다.</p> <p>한민택 삼정문화인쇄사 사장의 차남 형구군이 지난 6월 14일 노블레스웨딩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화촉을 밝혔다.</p> <p>윤준희 (주)대산스페셜 사장의 장남 재형 군이 지난 6월 20일 역삼동 GS아트타워 1층 아모리스 홀에서 화촉을 밝혔다.</p> <p>김순희 태진물산 사장의 차녀 현미 양이 지난 6월 14일 충청로 라운지W에서 화촉을 밝혔다.</p>
부은
<p>김영배 광동문화사 사장의 장인이 지난 5월 22일 별세했다.</p> <p>정성원 (주)삼정기획인쇄 사장의 부친이 지난 6월 9일 별세했다.</p>
이전
<p>세진종합미술(대표 백종희)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09-3으로 이전했다.</p> <p>(주)아이디인쇄(대표이사 이영산)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남학동 24-2로 이전했다.</p> <p>삼하기획인쇄(대표 김환중)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9-3으로 이전했다.</p> <p>(주)한섬기획(대표이사 정영준)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311-1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플로고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했다.</p>

한솔그룹 인쇄업 진출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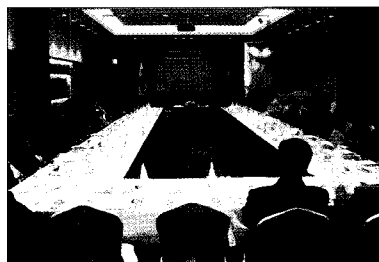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 5월 26일 서울인쇄센터에서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청와대 등 관계 요리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12개 지방인쇄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국 인쇄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3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한솔그룹이 이번 인쇄업체 인수를 통해 2015년까지 5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대로라면 연간 총 인쇄 물량의 14% 이상을 흡수해 간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 8000여 인쇄업체들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간 물량의 14% 이상을 빼앗아 간다면 70만 인쇄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음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쇄업계는 한솔제지의 종이를 사용하며 한솔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동반자라 할 수 있는 인쇄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 도산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솔그룹이 인쇄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회, 언론기관 등에 한솔그룹의 부도덕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1시 피제이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1/4분기 재무제표 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홍우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인쇄업 진출과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 업계가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단합하고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협회는 재정 자립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전기획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직지 홍보관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남봉익)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와 인쇄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홍보관을 운영했다.

'축제, 한류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축제체험과 공연, 이벤트, 심포지엄, 부대행사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직지홍보관에는 직지영인본(하권)과 복원본(상권),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을 담은 디오라마, 한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홍보 패널 등을 전시했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직지 금속활자 인쇄시연도 마련했다.

서울인쇄조합 이사회 개최



서울인쇄정보조합의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7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조정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솔제지의 '인쇄시장 진출' 소식에 대해 연합회, 문화협회 그리고 지방조합 등과 합동으로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동강령을 채택했다”고 설명하면서 “한솔제지의 종이 및 한솔 그룹의 상품 구매를 일체 하지 않을 것과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 언론기관 등에 한솔그룹의 부도덕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정석 이사장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인쇄용 원부자재를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조합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2008년도 1/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서울인쇄조합, 퀵크사 쉬아본 대표와 간담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조정석 이사장은 지난 6월 16일 인쇄센터 3층 접견실에서 미국 퀵크사 레이몬드 쉬아본(Raymond

Schiavone)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조정석 이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인쇄조합을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레이몬드 쉬아본 대표는 “퀵크사도 한국의 인쇄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서비스 및 가격 면에서도 한국의 인쇄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김범식 하이델베르크 대표, 이원경 인큐브테크 대표와 퀵크사 그레함 프리먼 시니어 부사장, 지안 프라카쉬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부장도 참석해 인쇄업 종사자들의 퀵크 사용 현황과 한국의 인쇄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인쇄문화인선교회, 사랑의 먹거리 바자회



한국인쇄문화인선교회(회장 신광철)는 지난 5월 14일을 지로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먹거리 바자회'를 개최, 인쇄업

계를 대표하여 조정석 이사장이 성금을 전달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쇄문화산업인들의 사랑이 불우이웃에게 전달되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있는 한국인쇄문화인선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서울인쇄조합도 여러분의 정성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랑의 먹거리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북한 어린이, 장애우, 몽골 어린이 등에게 사용됐다.

이전

배원인쇄사(대표 고경열)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45-7로 이전했다.

보훈문화사(대표 유해인)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7-6으로 이전했다.

태산문화사(대표 이강훈)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48-1로 이전하고 상호를 태산애드컴으로 변경했다.

직지 '도자기 활자판'으로 재탄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도자기 활자판으로 재탄생했다. 도자기 대장경 연구소 정금택 소장은 최근 "1년여의 준비 끝에 39쪽 분량의 39개의 도자기 활자판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했다"며 "당연히 인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도자기 활자판이 제작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활동하다 3년전 고향인 괴산군 장연면에 낙향해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정 소장은 이 작품들을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일반에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정 소장은 직지를 펼쳐놓은 형태에 활자도 양각해놓은 도자기 작품 39점도 함께 전시했다.

직지 도자기 활자판 제작에 성공한데 힘입어 팔만대장경 도자기 활자판 제작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힌 정 소장은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을 모두 청주시에 기증, 직지 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소장은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인쇄문화를 도자기로 재조명해보자는 뜻에서 도자기 활자판 제작에 나섰다"며 "도자기 직지가 직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 1회 세미나

동국대학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RIS)이 주최한 '친환경 인쇄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6월 27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제품의 요구 및 각종 규제와 국내 인쇄업계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 발표에는 국민대학교 엄기중 박사가 '인쇄용지 산업의 친환경적인 노력'에 대해, 팍컴코리아 김경수 대표이사가 '해외 인쇄물의 환경 친화적 제품 수요'에 대해, 재능인쇄 이세훈 생산총괄실장이 '환경 친화적 인쇄산업과 대두유 잉크의 적용'에 대해, 대한잉크 황점수 기술개발팀 차장이 '솔프리 잉크의 개발 배경 및 적용에서의 이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6월 10일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관계부처와 시·도가 추진하게 될 독서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예시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는 동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실정에 맞는 독서진흥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4대 과제와 동 과제에 대한 5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으로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보급, 노인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타라티피에스, LA도서전 참가



(주)타라티피에스(대표 이원순)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엑스포아메리카 2008(LA도서전)에 독자적으로 부스를 열어 참가하였다. LA도서전은 북미에서 첫 번째, 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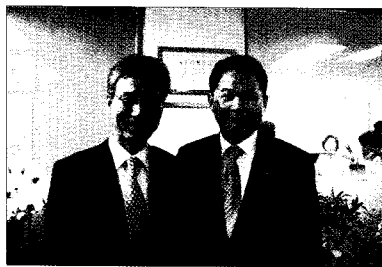
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서 전시회로 올해는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약 3만 7000명이 참석하였으며 약 1000명의 언론인 또한 참가하였다.

전시 기간 동안 2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부스를 방문 상담하였으며, 교황 베네딕트 16세에게 증정되었던 The Basilica of the Assumption 및 머큐리 디자인 상을 수상한 한국관광공사의 캘린더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타라티피에스의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제작하였던 인쇄물들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 및 잠재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확보 및 우량고객 유치에 주력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타라티피에스는 고품질의 상업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 종합 인쇄 기업으로, 그 앞선 기술과 품질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검증 받은 바 있다.

예인미술 신사옥 오픈하우스



(주)예인미술(대표이사 장회운)은 지난 6월 13일 성동구 성수2가 신사옥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다. 예인미술 신사옥은 고

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홍보를 위해 넓고 편안하며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지하 1층 지상4층인 신사옥은 지하 1층에는 제본, 제책 및 접착실을 두었고, 1층에는 기계실, 2층에는 소부실 등을 두고 있다. 3층에는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인미술 고객 및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의 관계를 자축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예인미술은 최근 하이델베르크 최신 중철기 ST450 및 인쇄 설비를 증설하며 프리프레스에서 후가공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이다.

장회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문화를 창조할 것”이라며 신사옥 확장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다짐을 표명했다.

성진레이저테크, 성진피앤케이로 상호 변경 및 신사옥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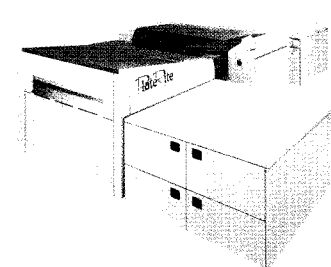


(주)성진레이저테크(대표이사 나채욱)는 지난 6월 13일 회사 상호를 (주)성진피앤케이로 변경하고 사옥을 신축해 이전식을 가졌다.

신사옥 이전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56-1217에서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23으로 이전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670.92㎡평방미터로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나채욱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성진피앤케이가 더욱 더 거둔 나기 위해 사옥을 신축해 이전했다”며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출력, 플레이트 라이트 8800 도입



다이니폰스크린의 협력사인 피투에스(대표 박언규)는 서울 중구 저동에 위치한 미디어출력(대표 서정화)에 초고속 최신형 CTP 시스템인 플레이트 라이트

8800ZX를 설치했다.

8800ZX은 최신형 1024채널의 GLV레이저 광원을 탑재, 4×6전지를 기준으로 시간당 51판의 출력속도를 자랑하고 자동간지 제거 및 자동 판 공급 그리고 현상까지의 전공정이 완전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한 자동 판 공급을 지원하는 싱글 오토 로더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 100장의 인쇄판을 적재할 수 있다.

한편 실사출력 및 카탈로그, 출판물, 포스터 등의 고급상업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출력은 인쇄품질의 고급화 및 운영상의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고품질의 인쇄와 차별화된 선진 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광티아이, 플레이트 라이트 8800 설치



다이네펀스크린의 협력사인 유니테크(대표 윤진용)는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조광티아이(대표 최정열)에 최신형 CTP 시스템 플

레이트 라이트 8800Z를 설치했다.

카탈로그, 출판물, 포스터, 월간지 등의 고급상업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조광티아이는 스크린사의 최신형 CTP 시스템인 플레이트 라이트 8800Z의 도입을 통해 인쇄품질의 고급화 및 운용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고품질의 인쇄와 차별화된 선진 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디어출력에 설치된 플레이트 라이트 8800Z는 최신형 512채널의 GLV레이저 광원을 탑재, 4×6전지를 기준으로 시간당 42판의 출력속도를 갖고 있다. 또한 자동간지 제거 및 자동 판 공급 그리고 현상까지의 모든 공정이 완전 자동화 되어 진행된다. 또한 자동 판 공급을 지원하는 싱글 오토로더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 100장의 인쇄판을 적재할 수 있다.

신아칼라, 국전4색 도입 가동식



신아칼라(대표이사 정철희, www.sina1515.co.kr)는 지난 6월 19일 오후 6시 30분 사쿠라이 국전 4색 인쇄기 도입 가동식

을 가졌다. 이날 가동식을 가진 사쿠라이 국전4색 인쇄기는 시간당 인쇄 속도가 1만 6000매이며 판사이즈는 975×710mm이고 블랭킷 사이즈는 975×830mm이다.

정철희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신의 시설도입으로 인쇄에서 제책까지의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도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고객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저동2가 46-4에 위치한 신아칼라는 자체 건물에 요비 4컬러, 아끼야마 4컬러, 사쿠라이 국전4색 인쇄기와 제책시설, 아그파의 CTP를 보유하고 있으며 CIP3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팩컴&성인문화사, 무현상 판재 아주라 계약



국내 주요 인쇄물 수출업체의 하나인 팩컴&성인문화사(주)(대표이사 김경수, www.sipk.co.kr)는 국내에서 최초로 무현상 판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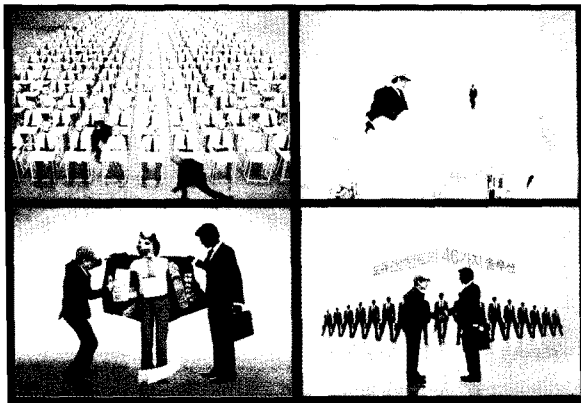
아주라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되는 자연 친화적인 무현상 판재로 친환경적인 인쇄를 선호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무현상 판재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쇄업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이발론 N8-70XT CTP 장비 및 워크플로 아포지 5.0, v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델라노, 잉크세이빙 시스템을 포함하는 대규모 계약 건이다. 이 장비를 설치할 성인문화사(주)는 주요 대기업의 인쇄 제작물 및 정기 간행물, 수출용 고급 인쇄물을 제작하는 국내 굴지의 인쇄 업체로 무현상 판재를 위해 새로운 이발론 N8-70XT CTP 장비 및 워크플로 아포지 5.0,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델라노, 잉크세이빙 시스템을 추가 계약했다. 이로써 성인문화사는 친환경 무현상 판재를 사용, 인쇄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업체가 된다.

김경수 사장은 “이번 아주라 무현상 판재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연친화적 인쇄라는 자사의 창조적인 디지털 인쇄문화에 또 한번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국내 최초 도입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 품질의 친환경 인쇄물을 생산해 내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그파코리아의 권순기사장은 국내의 인쇄업계는 수년 동안의 불황으로 디지털화는 물론 친환경적인 인쇄환경을 갖추는 것이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굴지 업체의 도입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인쇄 도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된 아그파의 새로운 잉크 세이빙 시스템

으로 불황에 어떻게 하면 원자재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후지제록스, 마케팅 활동 본격 점화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지난 6월 1일 새로운 2008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사무기기 제조라는 하드웨어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무환경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 2006년부터 문서관리전문가인 '도큐 컨설팅'을 퍼스널브랜드화 시킨 광고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기존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2008 광고캠페인 역시 도큐 컨설팅가 직장인들의 문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는 컨셉이다. 여전히 생소한 사무환경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사무환경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이를 도큐 컨설팅가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승필 홍보팀장은 "최근 UCC를 비롯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광고매체와 함께 시물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의 독보적인 문서관리 솔루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도큐 컨설팅트를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국후지제록스, 환경보호 캠페인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일본 본사와 한국, 중국, 호주 등 아태 지역 12개국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 'Love Earth Action Fuji Xerox(Leafx)'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여름 전 직원들이 실시하는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 개개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회사, 집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거주 지역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포인트 시스템'으로 불리는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은 시 짓기, 사진콘테스트 등 직원 대상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얻게 되고 높은 점수를 얻은 회사나 사업장 또는 개인들에게 'eco-goods'라는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획득한 총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니세프에 기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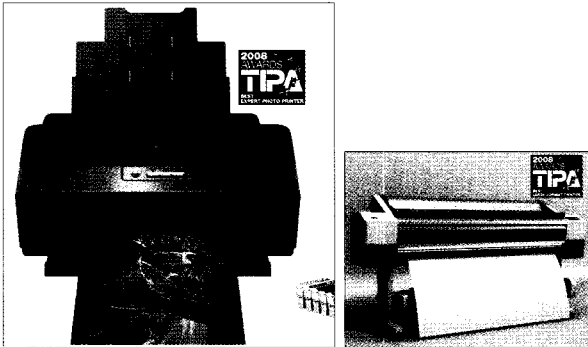
엡손·니콘, 교육 부문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한국엡손(대표 히라이데 슈운지, www.epson.co.kr)은 국내 대표적인 광학기기 전문 기업인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야마구치 노리아키, www.nikon-image.co.kr)와 교육분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린터, 프로젝터 등 대표적인 출력기기 업체인 '엡손'과 디지털카메라 등을 취급하는 광학기기 전문기업인 '니콘'과의 제휴로 유저들에게 단순한 IT 입출력의 '제품'을 뛰어넘어 이미지와 컬러에 대한 고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양사는 교육 분야의 물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가 및 하이 아마추어등 프로유저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따른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높은 상호 점유율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업무 협력 부문은 EPSON-NIKON 교육장에 상호 장비 세팅을 포함해 '고급/보급형 카메라 및 프린터 솔루션 세미나', '프로 초청 전문 공동 세미나', '하이 아마추어 초청 대규모 전문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고 지역 순회 워크 샵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단체와의 공동 협력으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엡손, TIPA 어워드2008에서 2개 부문 수상



엡손코리아(대표이사 히라이데 슈운지, www.epson.co.kr)는 포토프린터 '스타일러스 포토 R1900<왼쪽>' 과 엡손 대형 프린터 대표제품인 '스타일러스 프로 11880<오른쪽>' 이 유럽의 2008 TIPA 어워드에서 '베스트 엑스퍼트 포토 프린터', '베스트 라지 포맷 프린터' 를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TIPA 어워드(Technical Image Press Association)는 유럽의 영상 관련 잡지가 참여한 전문지 단체로 해마다 유럽에서 발표된 사진영상 제품 중 분야별 최우수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1991년 창설 이후 17번의 시상이 치러졌으며, 이 상을 수상하는 제품들은 수상 로고를 제품 패키지에 삽입하거나 프로모션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베스트 엑스퍼트 포토 프린터' 부문의 영광을 차지한 엡손의 '스타일러스 포토R1900'은 기존의 잉크에서 업그레йд 된 울트라크롬 하이글로스2 잉크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의 블루 컬러 대신 오렌지 컬러로 잉크를 교체한 것이 특징이다. 색 재현 영역이 더욱 폭넓게 확장되어 자연스러운 피부톤과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해 대형 인물 사진 출력에 뛰어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색 품질 표현에 효과적인 이 제품은 미국의 저명한 로체스터 연구소의 먼셀 컬러과학 연구실과 공동연구 개발한 세계 최초 LUT(Look-up table) 기술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엡손코리아는 '스타일러스 프로11880'은 울트라크롬 K3 잉크로 전반적인 색 영역을 넓혀 색 재현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특히, 선명한 진홍색이 교체 추가되어 레드와 블루 컬러 영역의 정밀한 표현이 가능해졌고, 블랙 컬러에서도 포토 블랙과 매트 블랙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1초당 최대 4만 잉크 방울을 분사해 빠른 속도와 고해상도를 실현하는 엡손의

마이크로 피에조 프린트 헤드 기술 역시 이번 어워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HP, 메뉴판닷컴과 제휴 사이트 새 단장



한국HP(주)(대표이사 최준근, www.hp.co.kr)는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 (www.hp.co.kr/bic)과 HP 프린팅존(www.hp.co.kr/hpz) 웹사이트의 음식요리 관련 콘텐츠를 강화

를 위해 메뉴판닷컴(대표이사 이원우, www.menupan.com)과 제휴, 웹사이트를 새 단장 했다. HP는 이번 제휴를 통해 음식 및 맛집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푸드 프린팅 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출력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메뉴판 닷컴과의 제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푸드 프린팅존(www.hp.co.kr/hpz)이 추가되어, 1500여개의 레시피 및 1천65개의 맛집·멋집을 등록해 위치와 상세메뉴 및 할인 쿠폰정보를 등록, 보다 쉽게 맛집·멋집 정보를 출력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푸드 프린팅존' 맛집 제공 콘텐츠에서는 상호 및 메뉴, 지하철 역 검색 등 검색기능을 강화, 상황별 검색 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영어교육콘텐츠 제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영어 학습에 있어서도 고객의 직접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양한 출력물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올 해 11월, 국내 유명 블로거들 공개오디션을 통해 캠페인의 핵심인 '당신(Achiever)'를 새롭게 선정하고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 시즌2'를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조태원 부사장은 'HP 프린트 2.0 비전은 기존의 프린터 비즈니스가 프린팅 비즈니스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너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쉽게 출력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프린팅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HP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리코, 웹 서비스 시스템(WSS) 구축



신도리코(주)(대표이사 우석형, www.sindo.com)는 지난 6월 16일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위해 '웹 서비스 시스템'

(WSS)'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도리코의 WSS는 고객이 PC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복합기나 프린터의 고장 상태를 신고하거나 소모품을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방문 정보를 핸드폰 문자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기기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고객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총괄본부장 최종하 전무는 "신도리코가 웹 서비스 시스템(WSS)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든 부문에서 선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2006년 업계 최대 통합 콜센터 구축, 2007년 PDA를 활용한 현장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온 만큼 2008년 온라인 부문의 성공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를 최우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리코, 마이 솔루션 광고 본격 런칭



신도리코(주)(대표이사 우석형, www.sindo.com)가 테크놀로지 스피릿' 슬로건 아래 '마이 솔루션'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를 새롭게 선보

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도리코의 '마이 솔루션' 광고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염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문서출력이 빚어내는 황당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수북이 쌓여있는 종이 옆에서 유유히 식사를 하는

염소, 분쇄기 밑에서 종이를 받아먹는 염소, 바닥에 돌아다니는 종이를 주워 먹는 염소,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선 염소는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문서출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광고의 끝부분에서 '기업이 문서 출력량을 1/4로 줄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몇 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사무실에 있던 염소들이 사무실 밖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도리코 '마이솔루션'이 기업의 사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광고를 총괄한 김성웅 홍보실장은 "소비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기업 광고를 동물을 활용하여 친근감을 높이고, 사무 환경과 염소라는 이색적인 결합으로 소비자에게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했으며 염소가 종이를 먹는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을 이용해 출력 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신도리코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모나미, 전국에 디자인 팩토리 개설



모나미(대표 송하경, www.monami.com)는 지난 6월 12일 맞춤형 출력 전문점인 '디자인 팩토리'를 경기도 수지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런칭한 '모나미 스테이션'을 통해 사무용품 유통 및 출력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모나미는 최첨단 디지털 인쇄장비와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갖춘 디자인 팩토리를 통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인쇄 서비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동안 소규모의 출력은 오피스 출력 매장에서, 전통적인 오프셋 인쇄는 전문적인 기획실을 통하거나 인쇄업체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디자인 팩토리는 기본적인 출력업무부터 최상급의 디지털 인쇄까지 한 번에 인쇄와 출력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송하경 대표는 "디지털 인쇄는 국내 인쇄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디자인 팩토리의 편리하고 질 높은 출력 서비스를 통해서 향상된 사무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도GL/솔루윈 직원 가족 초청 뮤지컬 관람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5월 21일 전 직원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호암 아트홀에서 뮤지컬 '소리도둑'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뮤지컬 관람 행사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율타리가 되어준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과 서로간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성도GL/솔루윈은 '행복한 직원, 행복한 고객, 그리고 존경과 사랑'이라는 회사의 주요 이념인 '삼더 트리'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이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의 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HP 파워 블로거 셀디전시회 후원



한국HP (대표이사 최준근, www.hp.co.kr)는 지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상상마당에서 열린 '여행 그리고 내가 디자인 하는 삶

(Self DesigneD Life)' 전시를 후원했다. 이번 전시는 서른 명의 파워 블로거 셀디와 상상마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HP가 후원한 가운데 방송인, 영화감독, UCC 전문 제작자, 사진기자, 방송작가,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파워 블로거 셀디 서른 명이 만드는 이색 여행 전시회로서 관심을 끌었다.

셀디멤버들은 지난 2007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촬영한 각자가 느끼고 있는 서호주의 모습들을 그들만의 감성을 담아 사진, 영상, 에세이, 일러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으며 전시회 속 여러 작품들은 여행지의 생생함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에는 세계로 가는 배낭여행, 유쾌한 여행 UCC 만들기, 스쿠터로 유라시아 여행하는 법, 오후에 풍경사진 찍는 법, 워킹 홀리데이 가는 법 등 그들의 이색 경험이 담긴 다채로운 강의를 곁들여지기도 했다.

한국HP, 기업용 프린팅시장 강화전략 발표



한국HP (대표 최준근, www.hp.co.kr)는 지난 6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용 프린팅 환경 변화와 통합출력관리서비스(이하 MPS, Managed Printing Service)의 성과발표 및 최근 동국제강그룹에 구축된 HP MPS 사례를 발표하고 기업 프린팅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HP는 지난 2005년 5월 국내에 MPS를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28개 고객에게 평균 20~30% 정도의 출력비용 절감을 이뤄냈다. 한국HP의 MPS 총 계약 가치는 총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올 상반기만 해도 8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HP는 지난 2005년 5월 국내에 MPS를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28개 고객에게 평균 20~30% 정도의 출력비용 절감을 이뤄냈다. 한국HP의 MPS 총 계약 가치는 총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올 상반기만 해도 8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P의 MPS는 기업의 출력 환경 개선을 위해 크게 4단계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 기본적인 인프라와 기능을 지원하는 첨단장비로 교체 ▲2단계 : 출력량에 따른 효율적 장비의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3단계 : 웹젯어드민(Web JetAdmin), 보안 솔루션 이외의 다양한 솔루션을 통한 보안성 강화 및 업무 능력 증대 ▲4단계 : 워크플로 개선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단순화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장 조태원 부사장은 "한국HP는 디지털프린팅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출력 요구를 시간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모든 분야의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HP 이미징프린팅 그룹의 프린트 2.0을 기반으로 한 전략"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기업용 및 상업용/산업용 시장 등 다양한 프린팅 시장에서 최적화된 프린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선두적 지위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동양잉크, 중국 제남공장 신축 오픈



(주)동양잉크(대표이사 최정운, www.dongyangink.com)의 팀장급 25명은 최근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소재 자회사인 제

남황관유목회사의 신축공장을 방문해 공장견학을 했다. 이번 신축된 공장의 총면적은 4만3090㎡(1만 3000평), 건평 1만 644㎡(3000평)로 건물은 총 4개동이며 월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신축공장은 중국 산둥성 제남시 천교구에 위치하고 있다. 동양잉크 관계자는 “중국 제남 공장 건립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인쇄 시장에 인쇄잉크를 공급하는 거점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는 동양잉크는 최근 고품질 UV 잉크인 ‘뉴 하이큐어’와 최고급 오프셋잉크 및 윤전잉크, 골판지용 수성잉크인 ‘탑그린’을 출시해 인쇄물의 효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 대한잉크 대표, 안양상공대상 수상

경기 안양상공회의소는 제25회 안양상공대상 수상자로 신현 대한잉크(주) 대표이사 등 3명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기능인력양성에 발전에 기여한 양명고 황해경 교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신 대표이사는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 후 국내 최대의 인쇄 잉크 전문 기술 연구소를 운영, 2007년 세계 최초로 무용제 오프셋잉크를 개발하는 등 신기술 개발로 매출을 향상시켰으며 품질향상으로 인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미국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를 비롯 해외시장을 개척, 수출을 증대시켰다.

김 대표이사는 2004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 CEO 직속체제의 혁신추진팀을 구성하고 전사적 혁신활동을 전개 적자이던 회사를 2005년 대규모 흑자로 반전시켰다. 조 대표이사는 2004년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사장으로 취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혁신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켜 2006년부터 흑자 기업으로 전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구축했다.

아그파코리아, 국내에서 드루파와 동일한 데모 서비스 실시



아그파 그래픽스는 드루파 기간동안 증가하는 한국 디지털 시장에서의 고객 수요를 참작, 한국어로 설명 가능한 프리프레스

전문가를 전일 파견, 한국어 데모 지원 서비스를 가졌다. 이는 언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신기술을 소개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아그파코리아는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드루파를 형편상 참석 못 한 고객들에게 똑같은 서비스 및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연락은 02-2262-4231, 2262-4200 chungha.chu@agfa.com로 문의해야 한다.

PAPER NEWS

제지뉴스

제지기술 표준화 국제총회 서울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종이, 판지 및 펄프 기술 총회가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등 31개 국에서 전 세계 제지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종이 및 판지의 ‘백색도 시험방법 관련 표준’ 7종과 물리적 특성인 ‘가속 노화 시험방법 관련 표준’ 17종 및 ‘펄프의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방법 관련 표준’ 2종 등 20여종의 표준 제정 및 신규 제안된 다수의 표준이 논의되었다. 또한, 금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추출액에서 오염화석탄산의 측정방법 표준’, 및 ‘미세골 골판지의 평면압축 강도 측정’ 국제표준안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한국제지, The Company of Korea에 선정



한국제지(대표이사 전원중, www.hiper.com)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The Company of Korea 2008'의 신리기업

및 경영혁신 부문에서 생활, 사무용품을 대표하여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제지는 금번 수상을 친환경 PCC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된 복사지 '하이퍼CC'의 브랜드 우수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이퍼CC 지역 무료배포 및 PPL 실시



한국제지는 지난 5월 21일 부산을 비롯해 대구, 울산 지역에서 '하이퍼CC' 무료 샘플을 배포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또 6월 6

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 미니시리즈 '달콤한 나의 도시' (매주 금요일 방영)의 사무실 촬영 장면엔 '하이퍼CC' 제품을 협찬하는 PPL을 실시하고 있다.

무림 김인중 사장, 동해펄프 대표이사 취임



무림(대표이사 이동욱, www.moorim.co.kr) 김인중 사장이 지난 6월 11일 온산 동해펄프 강당에서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동해펄프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김인중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설립, 임직원 처우개선, 시설투자자와 화합의 장 등 동해펄프의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밝

히면서 '이제 시작이야'로 대표이사의 첫 일성을 열었다. 또한 김인중 사장은 "동해펄프의 성공이 바로 무림그룹의 성공이고, 동해펄프의 미래가 바로 무림그룹의 꿈"이라며 무림그룹 내 동해펄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펄프와 제지의 시너지 확대에 주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인중 사장은 동해펄프 시장에 취임하면서 무림페이퍼, 무림SP 대표이사를 모두 겸임하게 돼, 무림그룹의 제지사업을 총괄하게 됐다.

무림, 네오클럽21 초청 골프대회 개최



무림(대표이사 이동욱, www.moorim.co.kr)은 지난 5월 8일 경기도 양지파 인리조트에서 '네오클럽21 초청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고객들과의 정보 및 친선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무림의 주요 고객사로 구성된 '네오클럽21' 회원 및 실수로 거래 총 22명의 대표가 참석해 7개조로 나뉘어 라운딩을 시작했다. 이 날의 메달리스트는 73타를 기록한 박용재 사장(페이퍼플라자)이 차지했으며, 우승은 김영원 사장(삼안지업)이 차지했다. 한편 롱기스트상은 243m를 기록한 황호근 사장(갑을지업)이, 니어리스트상은 85cm를 기록한 이상준 대표(이건지류)가 차지했다.

무림, 영문 뉴스레터 창간

무림(대표이사 이동욱, www.moorim.co.kr)은 최근 해외 고객들을 위한 영문 뉴스레터를 창간했다. 총 4페이지로 제작된 창간호에는 무림의 동해펄프 인수를 주요 골자로 한 기사와 김인중 사장의 창간 인사를 필두로 무림USA 박종웅 법인장의 인터뷰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무림USA의 2008년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네오아트지 제품 소개와 함께 무림의 다양한 사내외 소식을 게재했다. 무림은 향후 매 분기마다 뉴스레터를 제작해 소식, 나눔을 통한 해외고객들과의 유대관계강화는 물론, 제품홍보와 적극적인 의견피드백을 통해 해외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무림, 2008년 브로슈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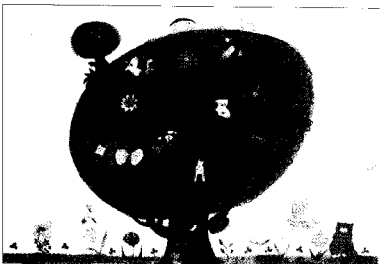
무림페이퍼와 무림SP가 2008년도 브로슈어를 제작, 배포했다. 국내 및 해외 회사소개용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작된 2008년 브로슈어는 지난 해 애뉴얼리포트의 기능을 겸해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점에 착안해, 주요 부분을 새롭게 첨부해 리뉴얼했다. 특히 이번 브로슈어는 표지에 명함꽃이가 포함된 간지 삽입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신선하다는 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림 관계자는 "주요 제품 소개부터 무림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담은 이번 브로슈어를 통해 당사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한층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림, 홍보 동영상 제작

무림(대표이사 이동욱, www.moorim.co.kr)은 내방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될 약 10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은 본사와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무림SP 대구공장의 다양한 설비와 임직원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이번 홍보 동영상은 무림의 현 모습과 미래의 비전 및 포부를 당사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무림의 관계자는 "사내 모델을 적극 활용해 임직원들의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무림의 친근함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화페이퍼갤러리 '일러스트 4인전' 전시



삼화제지(주) 삼화페이퍼갤러리(대표이사 김연호, www.samwhapaper.com)에서는 '일러스트 4인전'을 오는 7월 7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일러스트 4인전 '사인사색(四人事色)'은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4인의 4가지 다른 색깔의 일러스트 작품을 삼화종이에 표현한 전시이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는 에비뉴, 보그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김시훈 작가, 어린이 동화작가로 활동 중인 김이조 작가,

패키지, 광고, 잡지, 단행본 등 폭넓게 활동 중인 김진이 작가, 신문 및 인쇄광고 일러스트로 활동 중인 박하 작가로 구성된 4가지의 다른 색깔로 표현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삼화페이퍼갤러리 작은 전시 공모전

삼화제지(주)(대표이사 김연호, www.samwhapaper.com)가 운영하고 있는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는 '두번째 2008 작은 전시 공모전'을 참가를 받고 있다. 삼화제지 종이를 가지고 만든 아이디어가 담긴 '종이패키지' 작품 중 10점 이상을 선정, 삼화페이퍼갤러리 8월 테마전시에 전시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이번 작은 전시 공모전에는 개인 및 그룹으로 구분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우수작품을 선정,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Package'이며 참가대상은 디자인관련 학과 학생 및 일반으로 사실상 참가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었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이며 자기소개서, 작품설명서, 작품 및 작품CD를 삼화제지본사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44 삼화빌딩 8층이며 발표는 7월 11일 삼화페이퍼갤러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삼원특수지, 종이 다시 태어나다 전시회



삼원특수지가 운영하는 삼원페이퍼갤러리(대표 이상욱, www.papergallery.co.kr)는 오는 8월 3일까지 '종이 다시 태어나다' 전

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크게 2가지 섹션으로 구분되며 수제지 만들기 워크숍과 버튼만들기 이벤트도 준비되어있다.

해외 수제종이 부문에서는 태국, 네팔, 필리핀, 홍콩, 프랑스, 인도, 미국, 대만, 이집트 등에서 만들어진 수제지 350여 가지를 볼 수 있다. 친환경 그래픽 인쇄물 부문에서는 친환경 마크를 인증 받은 종지로 제작된 환경선진국의 인쇄물 12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해당 종이는 갤러리에서 직접 구매도 가

능하다.

삼원페이퍼갤러리 큐레이터 이소미씨는 "삼원특수지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FSC CoC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다. 이에 환경을 지키는 종이는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본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

두성종이, FSC인증제 등 환경 리플렛 제작



두성종이(대표 이용훈 · 이해원, www.doo-sungpaper.co.kr)는 2008년 에코리드(ECO LEAD)선언과 함께 상치받은 지구의 재생을 위해 세계의 에콜로지 페이퍼마크와 FSC인증 제도에 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FSC란 '숲의 건강', '숲의 관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보호'라는 세 가지 기능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지속가능한 환경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리플렛은 전시 및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두성종이 페이퍼 갤러리를 통해 일반 고객에게도 친환경 종이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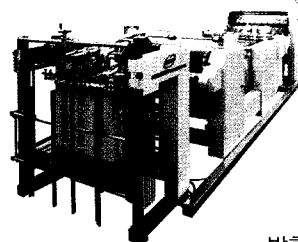
두성종이 관계자는 "'에코리드'를 시작으로 FSC환경 리플렛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인 두성종이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문화창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 PRODUCT

신제품

지엠피 세계 최초로 인덕션 히팅 롤러 장착된 라미네이터 선보

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 www.gmp.co.kr)는 드루파2008 기간에 전자유도가열 롤러를 자체 제작, 세계최초로 인덕션 히



팅(Induction Heating)롤러가 장착된 라미네이터를 첼린저 플러스 1020 듀얼(사진)을 비롯한 전 기종에 장착해 선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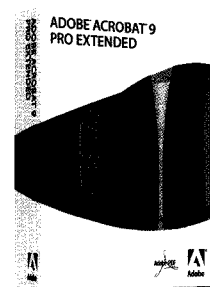
전자 유도가열롤러는 예열시간이 짧아 에너지 효율이 일반 롤러에 비해 50%이상 좋으며 온도편차가 없어(1도 이내), 고장이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와 배관이 필요없기 때문에 설치 공간이 적어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엠피는 페트나 나일론 등 단면 라미네이팅시에 고속절단이 가능한 Rotary Flying Knife시스템을 선보여 그 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온 절단면 불량문제를 해결하여 페트 및 나일론 시장이 성장할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지엠피는 드루파2008전시회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00여명의 바이어가 부스를 방문하였으며 28개국 37개 업체에 총 543만 달러의 수주상담 중 201만 달러 직판, 최종계약서 서명만 남긴 342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엠피의 김양평 회장은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바이어들과 국내업계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본사 및 생산공장에서는 전시회 참가 이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라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도비, 어도비 애크로벳 9 제품군 발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지준영, www.adobe.com/kr)는 지난 6월 3일 PDF 기반의 차세대 전자문서 솔루션 '어도비 애크로벳 9' 제품군 영문판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출시된 애크로벳 9는 이전 버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전자문서 최초로 영상 재생 기술인 '어도비 플래시' 기술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츠를 하나로 통합하는 PDF 포트폴리오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획기적인 차세대 전자 문서의 모습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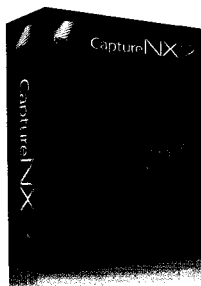
또한 동료와 실시간으로 PDF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액로벳 9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로 재생 가능한 비디오 및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PDF 문서에 접목시켜, 기존의 정적인 문서를 역동적인 문서로 진화시켰다. 특히 무료 PDF 뷰어 프로그램인 '어도비 리더 9'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또한 액로벳 9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인 'PDF 포트폴리오' 기능을 사용하면, 문서나 비디오, 오디오, 심지어 3D 개체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를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된 PDF 포트폴리오는 세련된 플래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며, 통합멀티미디어 문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니콘,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발매



광학기기 전문 기업 니콘이 미징코리아(대표 야마구치 노리아키, www.nikon-image.co.kr)는 지난 6월 20일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Capture NX 2'를 발매했다고 밝혔다.

'Capture NX 2'는 2006년 발매된 'Capture NX'의 기능을 발전, 강화했으며 편리한 조작 및 간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다. 특히 니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RAW(NEF) 파일의 경우, 사진 컨트롤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Capture NX 2'는 'Capture NX'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원하는 색상이나 밝기, 채도 등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컬러 컨트롤 포인트' 기능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선택 범위의 설정을 조작하지 않고 단시간에 선택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선택 컨트롤 포인트' 기능을 추가했다.

'선택 컨트롤 포인트' 기능은 사진 편집의 모든 기능을 모니터 보면서 선택한 부분에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브러쉬 툴 만으로도 간편하게 인물의 잡티와 같이 필요 없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수정해주는 '자동 리터치 브러쉬', 효율적으로 팔레트의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내 작업 영역' 기능, 편집 목록의 개량 등 간편한 조작과 풍부한 표현력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www.nikon-image.co.kr)에서 평가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국HP, 드루파 2008에서 큰 실적



HP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드루파 2008에서 HP인디고 프레스 장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캐나

다 및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디지털인쇄 업계 단일 계약 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인디고 프레스 36대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한국HP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HP 중에서 상위5위 안에 들면서 작년 인디고 프레스 판매실적의 절반에 가까운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학술정보는 기존에 사용 중인 HP 인디고 프레스 5대에서 추가해 신제품인 HP 인디고 프레스 7000 제품 3대를 도입, 계약하여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한국학술정보는 현재 국내에서 학술서적 출판의 디지털 인쇄로 시장 개척의 유력주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온디맨드(On Demand)로 생산하는 디지털 프린팅을 통해 효과적인 재고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지난 3년간 매년 1000여종을 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파, 브라질에 천오백만 유로 투자 결정

아그파는 현지 브라질 Suzano 공장에 유로화 천 오백만유로 상당을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무현상 디지털 판재인 아 주라, 에너지 엘리트, N92바이올렛플레이트를 포함한 디지털 판재 군을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남 아메리카 지역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 하는데 따른 결정이며 수자노 공장의 추가 투자로 아그파는 디지털 플레이트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을 재확인 했다. 이 수자노 프로젝트는 소비자의 요구를 더욱 가까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국, 유럽, 아메리카 전 지역에 골고루 생산하는 월드와이드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입지한 수자노지역의 공장은 현재 브라질 및 라틴 아메리카에 공급하는 아날로그 오프셋 플레이트 및 케미칼을 생산해 왔으며 2008년 이후 발매된 모든 디지털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판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아그파그래픽스, CIP4관련 인증 최초 획득

아그파 그래픽스는 자사의 아포지 5.0 워크플로 솔루션이 전 미 그래픽 아트 기술재단 (PIA/GATF)에서 수여한 'CIP4 Certified Product'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CIP4에 대한 안정성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JDF가 다른 경쟁 워크플로보다 월등하게 구동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그파 그래픽스는 아포지 5.0이 이 인증을 최초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versioning을 위한 Validation, stripping 운전기를 위한 계산기(calculations)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레벨2'를 패스한 최초의 JDF프리프레스 워크플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art De Pelsmaeker 아그파 그래픽스의 소프트웨어 그룹 이사는 "이번 인증은 PIA/GATF에서의 두번째 인증이며 이로써 아그파 그래픽스의 고객에게 JDF통합은 실제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무척 크다" 는 소감을 밝혔다.

첫번째 스피드마스터 XL 162 프랑스서 구매

드루파 2008 동안 SB그라픽과 SB 그라픽 플러스는 하이델 베르그의 스피드마스터 XL162를 처음으로 계약했다. 파리 근



교에 위치한 인쇄사인 이들은 이번에 구입을 결정한 XL162 대형 규격 인쇄기를 오는 10월에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SB그라픽은 이미 스피드마스터 CD 102-5+L와 스피드마스터 CD 102-6+L 및 스피드마스터 CD 74-5+LX를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CD 102-5+LX는 지난 5월에 설치되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인쇄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SB그라픽사는 사업 확장을 목표로 프랑스의 출판 시장에 진입하고 패키징 인쇄를 확장하기 위해 스피드마스터 XL 162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1992년에 창업한 이 회사는 2곳 (SB 그라픽 및 SB 그라픽 플러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비슬로흐 발도프 공장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을 때 성능, 품질과 기계 규격에 큰 인상을 받았으며 드루파2008에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라고 두 회사의 대표들은 말했다.

2000번째 수프라세터 호주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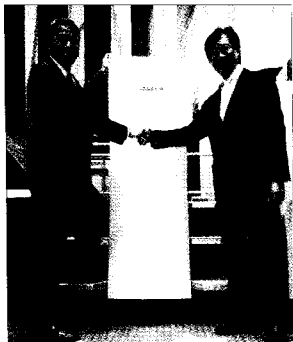


하이델 베르그는 2000번째 수프라세터 CTP시스템을 호주 프리프레스 회사인 페이지셋 디지털 프린트사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기계는 1시간에 27장을 생산하는 수프라세터 105이며 600장까지 판을 적재하는 멀티 카세트 로더와 자동화된 프리프레스 워크플로를 위한 프리넥 프리프레스 매니저가 포함되었다. 페이지셋은 호주의 대규모 프리프레스 스튜디오에 해당하며 수많은 인쇄사의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페이지셋은 호주 전역 12곳에 있으며 하이델베르그와 오랜 관계를 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9대의 트렌드셋터 중 가장 오래된 것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하이델베르그는 전 세계에 약 6500대의 CTP 장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0년 초에 인쇄판의 다이렉트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난 2004년 드루파에서 모듈식 디자인, 자체 개발된 완벽히 새로운 레이저 헤드를 장착한 써멀 기술의 수프라세터 시리즈를 선보였다. 2006년에 수프라세터 A52/A74 시리즈가 발표되었으며 수프라세터 A52/A74 는 중소규모 인쇄사가 최신의 모델로 높은 이미징 품질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이며 경제적인 써멀 판 출력기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초, 하이델베르크는 수프라세터 시리즈에 다양한 기술적 혁신 기능들을 추가하고 확장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2008년 드루파에서는 새로운 초대형 규격 인쇄기인 스피드마스터 XL 162 및 XL 145 출시와 더불어 190, 162 및 145 규격의 최신 수프라세터 모델들을 선보였다.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인쇄기와 함께 100x140 cm 및 120x162 cm 규격의 신제품 수프라세터 시리즈는 저명한 레드 닷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태국 인쇄사,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XL75 32개 유닛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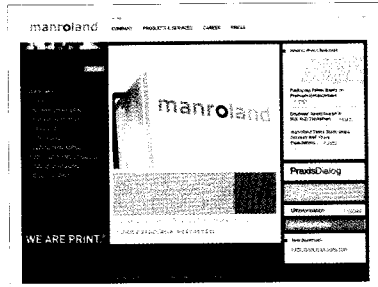


드루파 2008에서 태국 방콕에 위치한 투잉 후아 신 그룹은 하이델베르크의 스피드마스터 XL 75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32개 유닛에 달하는 이번 구매로 통해 투잉 후아 신 그룹은 신제품 스피드마스터 XL 75의 세계 최대 사용자가 되었다.

이 회사는 고품질 인쇄와 환경 친화 인쇄에 대해 저명한 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프리프레스, 인쇄 및 후가공 뿐 아니라 코팅, 다이컷팅 및 엠보싱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리더로서 명성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전체 생산 공정에서 가장 최신의 기계를 사용, 이러한 투자를 통해 인쇄사는 확실한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고객에게 완벽한 만족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는 최대 인쇄 속도 시간당 1만 8천매, 오토플레이트 XL 및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이나 이중 코팅 인쇄기 및 컷스타나 포일스타 모듈과 같은 선택 사양들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인쇄기는 다양한 요구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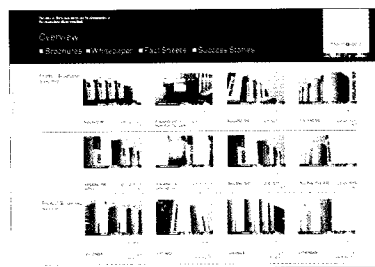
만로랜드 새 홈페이지 선보여



manroland AG는 드루파 2008 전시회를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www.manroland.com)를 선보였다. 이번에 개편

된 홈페이지는 새로워진 기업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특히, 회사 소개, 만로랜드 이벤트 관련 정보, 전세계 지사 관련 정보, 다양한 인쇄기 동영상, 강화된 뉴스 센터, 업그레이드 된 제품 소개, 고객 잡지, 제품 사진, 세미나 자료를 포함하는 자료실, 교육센터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로랜드 브로셔 전면 개편



manroland AG는 드루파2008을 기점으로 모든 브로셔를 전격 개편했다. 만로랜드는 이제 획기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야 할 때라는 인식 아래에 여러 가지 요구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감각의 브로셔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브로셔는 업그레이드된 만로랜드 인쇄시스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개방형 레이아웃, 더 커진 인쇄시스템 이미지, 새로운 배색, 깔끔하게 배열된 문장 구조 등으로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모습의 브로셔는 또 다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MAN Roland Druckmaschinen AG는 manroland AG로 바뀌었고, 기존의 브랜드가 누리고 있는 강력한 인지도를 존중하여 그에 근거하여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역동적인 새로운 브랜드가 개발된 것이다. 매력적인 새로운 브로셔의 디자인은 만로랜드의 해외지사 및 세일즈, 서비스 파트너에 의해 전세계적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만로랜드코리아에서는 곧 한국어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